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

교회와 공간

신학자가 본 교회 건축

곽호철 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건축가가 본 교회 건축

홍기협 자오개마을 대표건축가

공간의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에서

2019. 11. 29. 금. 오후 2:00~5:00

경동교회 장공채플 선교관 4층 서울 중구 장충단로 204

10,000원(후원회원 무료)

02-794-6200, cemk@hanmail.net 윤신일 간사

하나님과 성령이 임재이 되어 버린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놀라운 사건

발행일 | 2019년 11월 29일(금)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편 집 | 윤신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교회와 공간: 공간의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성경이 옵션이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다

본 자료집은 흑백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컬러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 → '자료실' → '자료집' 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길 권합니다.

순서 및 목차

사회 : 김상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강의 1: “신학자가 본 교회 건축”

곽호철 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5p

강의 2: “건축가가 본 교회 건축”

홍기협 자오개마을 대표건축가

31p

발제자 상호 질의·응답

참가자 질의·응답

경동교회 본당의 건축학적 의미(설명: 홍기협 대표)

신학자가 본 교회 건축

곽호철 교수

(연세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신학자가 본 교회 건축: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와 교회 공공성

곽호철

들어가는 글

워싱턴 DC의 워싱턴 몰 안에 배치된 베트남참전기념비의 설계자인 마야 린은 “건축은 소설을 쓰는 것과 같다.”고 했다.¹⁾ 건축은 인간이 만든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그녀가 설계한 기념비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지면 아래로 초대하는 건축물이다. 김혜정은 그 건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땅에서 우뚝 솟은 상징적인 기념비와는 달리 지면으로부터 아래로 향하며, 조용히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산책로와 같은 경사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벽면에 전사자들의 수많은 이름을 새겨놓았다.”²⁾ 건축물이 위압감이 아니라 부드러운 초대로 사람들의 시야와 감정을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이르게 하는 예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가? 불특정다수를 압도하는 과시적 공간인가? 아니

1) 김혜정, 『차이와 차별: 건축의 존재와 희망』 (서울: 공간사, 2006), 170. 재인용.

2) 김혜정, 같은 책, 163. 마야 린의 참전기념 조형물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워싱턴 기념탑이다. 170미터 높이의 오벨리스크이고, 평양의 주체사상탑은 171미터이다.

면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포용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공간인가?



<그림 1> 워싱턴 DC의 베트남참전기념비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공용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도로지하 점용부분에 대해서 담임목사는 사랑의 교회가 영적 공공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공공성을 지키라는 법을 위반한 것이 영적 공공재를 위함이라는 발상은 창조적이긴 하지만 중세의 교권이 왕권 위에 군림하려던 역사의 답습에 불과하다. 문제는 영적인 공공재를 주장한 교회가 지난 9월에 서초역 사거리에 있었던 공공적 특성을 보이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회장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적재산권 앞에서 영적 공공재가 무력한 모습이다. 특정한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고 영적 공공재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교회의 행태가 자기모순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며,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타자이다. 이웃은 주체에게 타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강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타자를 사랑하라”로 요약된다. 타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타자가 환대되는 곳이며, 타자가 머무르는 공간이다. 하나님이신 절대 타자가 임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인 타자가 드나드는 곳이다. 절대타자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어야 하며, 이웃인 타자가 드나들기 때문에 열려 있는 공간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거룩성과 더불어 환대와 개방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가?

한국교회 건축의 문제

한국교회 건축의 근본적 문제는 신학의 부재이다. 교회건축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구적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본떴고, 고딕 혹은 유사고딕의 형태가 주류를 이뤘다. 한국교회 건축 양태를 비판하면서 이정구는 유사고딕 형태의 건축물들이 한국교회 건축의 전형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유사고딕은 “중세 유럽의 고딕 양식을 복고하려고 했던 네오고딕 양식을 기초로 하여 고딕의 형태를 부분 변형시킨 다양한 형태의 고딕풍의 건축물을 지칭한다.”³⁾ 서구교회가, 특별히 19세기 영국교회가 추구했던 고딕양식은 “그 당시의 교회를 중세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던 교회 예전 복고 운동과 미술 공예 운동에서 비롯된 신학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이와는 달리 한국교회가 유사

3) 이정구, 『한국교회 건축과 기독교 미술 탐사』 (서울: 동연, 2009), 98.

고딕 양식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영국교회나 유럽중세 고딕을 모방한 것도 아니라고 그는 비판한다.⁴⁾ 그는 고딕 양식이 중세의 문화와 환경에는 어울리지만 한국의 정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다.⁵⁾ 같은 맥락에서 승효상도 고딕 양식의 교회 건축은 시대착오적이며 현재 한국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확대하면, 건축은 그 시대의 미학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교회건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원적 민주주의의 시대에 산다면, 당연히 교회도 이 사상적 토대 위에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딕의 껍데기인 뾰족탑을 고집하거나 고딕의 양식을 답습하는 교회는 시대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의 교회는, 봉건시대에 세웠던 종교권력자 중심의 교회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연한 축선을 강조하여 인간을 계급적으로 구별시키고 성소를 높이 쌓아 수직의 위엄으로 인간을 괜히 죄인시키는 그런 교회는 전시대적 교회입니다.⁶⁾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신학적 성찰의 부족으로 교회 건축에 고딕 혹은 유사고딕 양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딕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인 첨탑의 경우, 미관상 큰 문제를 드러낸다.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지붕에 십자가 첨탑을 세운 경우가 그러하다. 경쟁적으로 세워진 상가의 십자가 첨탑은 신학의 부재라기보다는 잘못된 신학의 형상화이다. 그 십자가 첨탑은 섬김의 신학을 드러내기보다는 지배의

4) 이정구, 『교회 그림자 읽기』 (서울: 다산글방, 2011), 164.

5) “고딕 양식의 기원은 대체로 수목에 두고 있다. 유럽의 평지에서 드높게 올라간 나무들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해서 붙인 말이다. 평지에 높은 건물이 없고 나무가 무성하던 중세 유럽에서의 고딕 양식은 당시로서는 친환경적인 양식이었으며 지표 역할까지 했음에 틀림없다.” 이정구, 같은 책, 168.

6) 승효상, “교회 건축의 윤리와 공공성”, 『기독교사상』 (2013), 58-59.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신학을 손호현은 맘몬의 신학이라고 규정한다: “현재 교회 건축이 보여주는 신학은 번영의 신학이고 맘몬의 신학이지 예수의 신학은 아니다.”⁷⁾

맘몬의 신학과 번영의 신학이 구체화되는 것이 과시형 교회 건축이다. 번듯한 교회를 건축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목회자들이 무리수를 둔다. 과시형 건축의 우선적 문제는 교회 구성원들을 공간을 채우는 도구적 존재로 격하시킬 위험성이 있다. 박우영은 “한국교회 공간의 탐욕적 확대가 단순히 그 공간을 채울 익명의 공간 내 신체들의 확보에만 관심이 커지는 구조를 강화시켰음을 지적한다.⁸⁾ 교회라는 공간이 그 자리를 채우는 교인들에게 존중감을 주기보다는 교인들이 공간을 위한 수단이 되는 목적전치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번영과 맘몬의 신학으로 한국교회가 규정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가 소유한 건물로서의 대형교회를 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의 목회 담론에서 상가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교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염성철의 『상가 교회에 희망을 주는 비전교회 이야기』라는 저서는 상가교회 자체에 대한 긍정과 비전이 아니라 상가 교회를 벗어나서 번듯한 교회를 건축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존재로서의 상가교회는 완전체가 될 가능성이 없고, 불완전한,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영원한 미완성으로 인식되어 있다.

과시적 교회 건축은 교회구성원들에게 큰 짐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무리한 건축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수협은행에서

7) 손호현, “교회 건축의 십계명,” 『한국교회건축과 공공성』(서울: 동연, 2015), 14.

8) 박우영, “한국 내 교회 공간 읽기와 공간 구조 균열 만들기: 폭력과 통제의 공간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2013), 261.

만 5년간 6조가 넘는 대출을 교회들에게 해줬고, 그 중 1500억 가까이 되는 원리금이 제때 상환되지 못했으며, 250억 원은 손실처리 되었다.⁹⁾ 교회들이 은행 빚에 시달릴 경우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례로, 한 교회가 지나친 확장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어려움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모두 짐이 되었고, 교회 빚을 갚기 위해서 교인들은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교회가 현금으로 교인들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 차압까지 들어가게 되어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 그 상황에서 다른 교인은 자신의 눈을 빼서 팔아야 한다는 음성까지 들었다고 간증을 했다. 과시적 교회 건축이 구성원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자해적 상상으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형교회가 교회의 지향점으로 제시되는 번영의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 함정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맘몬에 사로잡힌 교회와 목회자도 교회 건축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경매와 매각이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심지어 “은퇴로 인해 교회를 매각합니다”라는 광고도 버젓이 등장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은퇴 목회자의 사유화된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교회는 6층 건물로 16개 원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입 5,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구매 즉시 사역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한다. 교회 건물이 철저하게 맘몬에 포섭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태식은 종교의 사유화와 그에 따른 주술화라고 주장한다. 종교의 사유화는 종교가 개인적 영역으로 축소되며 종교의 객체화로 연결되는데, 이는 “종교가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개인의 영혼구원이라는 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종교는 개인이 취사선택하는 하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사유화에 따른 이러한 종교의 대상화는

9) 정지은, 수협은, ‘부실교회대출’로 5년간 250억 손실, 한국경제, 2018년 10월 29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2970831>

종교의 주술화를 다시 가져온다....그것은 개인들이 취사선택하는 대상이 된 종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그 의미체계가 변형되어 개인의 이해관계와 연루된 의미체계, 즉 이데올로기로 전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인정하기 싫은 대목이지만, 이미 교회는 사유화와 주술화에 사로잡혀 이해관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교회 건물이 교환가치로 전략해버린 것이 한국교회 건축을 사유화의 방향으로 몰았고, 그 사유화는 교회의 공공성이나 공공적 가치를 평가절하해 버렸다. 이런 현상을 소수 목회자들과 교회의 일탈로 보기는 어려운 것은 교회 성장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손규태는 “한국의 교회들이 극단적으로 보수화되고 자본주의적 성공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매몰되면서 교회 성장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타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 완결적인 집단으로 이해했”고, “교회의 활동과 역할을 개인주의적이고 사적 영역으로 국한 시켜서 영적 구원에만 몰두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성과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봉사를 멀리하거나 등한시켰다”고 평가한다.¹¹⁾ 사적이고 영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이분법적 신학은 교회의 사유화와 과시형 교회 건축을 제어할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한국교회 건축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배타성이다. 한국교회의 공간은 타자 환대에 인색한 편이다. 앞서 사랑의 교회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교회 자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는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회 외부인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교회 건물 자체가 폐쇄적이라는 대표적인 예는 화장실 개방의 문제이다. 상가교회의 경우 교회가 관리하는 화장실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심지어 자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도 화장실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들

10) 정태식,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사회적 위치와 공공성,” 『신학사상』 142 (2008), 207.

11)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02.

도 있다.

교회의 배타성과 관련된 문제로 더 심각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이다. 교회에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승강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예배당 안에서 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휠체어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통로 및 구조인 경우도 많다. 어떤 예배당의 경우는 통로의 경사가 심해서 휠체어로 다니기에는 위험한 곳도 있다. 예배당 안에서도 회중석에는 앉기 어렵기 때문에 맨 앞쪽에 위치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맨 앞자리는 다른 교인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강단을 우러러 봐야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되기도 한다.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 교회 공간의 구조이다.

한국교회 건축에서 타자배타성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이다. 여성이 교회 구성원의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배려나 여성적인 특성이 교회 건축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봉사에 맞춰져 있었다. 집에서 살림을 하듯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교제와 친교를 위한 봉사를 해 왔다. 그 주요 공간은 주방이다.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주방은 주로 후미진 곳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주방은 주로 어둡고 습한 곳, 혹은 중앙으로부터 먼 구석에 자리 잡았다.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봉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유하는 여성의 공간도 배려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남녀화장실의 크기는 평등하게(?) 배분된다.

생태적 차원에서 한국교회 건축은 생태계의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 건축 현장에서는 생태적인 가치 실현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제한된 건축 예산을 갖고 교회 건축을 한다고 보면, 친환경 건축을 할 때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덜 환경친화적인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한국교회 건축의 문제는 교회라는 공간이 구조적으로 죽은 자를 배제하는 데 있다. 교회력에서는 죽은 자들이 배제되지 않는다.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로 먼저 간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 기념한다. 서구의 교회들은 교회에 묘지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회는 죽은 자들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는 우주적 교제의 공간, 즉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이 교회의 전통을 공간에서 지워버렸다. 교회는 배제의 동력이 작동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작동하는 삶의 구심력이 죽음을 원심력으로 내몬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삶에 매몰된 공간이 되고, 삶을 넘어서는 공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다.

나열된 한국교회 건축의 문제점, 즉 신학의 부재, 과시형 교회, 배타적 교회, 여성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죽은 자 배제의 문제 모두는 타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직결된다. 타자에 대한 배려 없음과 무관용, 혹은 배타성이 한국교회 건축의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교회 건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학 회복이 급선무이며, 타자를 위한 교회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회의 잘못된 신학을 극복하고 타자 환대와 수용의 교회 건축을 추구해 가야한다.

타자를 위한 교회와 교회의 공공성

교회 건축에 있어서 신학의 부재 혹은 잘못된 신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은 타자 사랑으로 요약된다. 예수의 가르침이 타자 사랑으로 요약된다면 예수의 가르침이 이뤄지는 공간은 타자 사랑이 구체화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회퍼도 이미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교회는 인간 공동체 생활의 세속적인 과제에 관여하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유익을 주면서 관여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며,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어야 한다.”¹²⁾ 본회퍼의 주장처럼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하며 그에 합당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는 “자기 목적적인 자기만족적 단체, 즉 자기 완결적 존재”의 특징을 벗어나야 한다.¹³⁾ 자기 완결을 위해서 자기 안으로 수렴되는 교회는 사유화와 게토화를 극복할 수가 없다. 자기 목적적인 단체는 늘 타자를 수단으로 취급한다. 타자를 수단으로 취급하면 타자가 자리할 공간에 대한 배려는 사라진다. 자기 완결적인 존재로 교회를 규정하면 동일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늘 배척의 대상이다. 자기만족보다는 타자를 만족시키고, 자기 완결보다는 타자와 함께 완성을 이루는 존재로 교회는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교회 공간과 관련해서 타자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담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 공간이 타자 포용의 공간이 된다는 것은 주체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주체가 배려하는 다양한 타자가 수용되는 공공적인 공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맥락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손규태는 교회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데서 그것이 갖는 공적 성격, 즉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본다.¹⁴⁾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의 자기폐

12)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옮김,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서울: 복있는 사람, 2016), 370.

13)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193.

쇄성을 극복하면서 타자로 지평이 넓어지고, 공공성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우선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개방성을 지녀야한다. 승효상은 이렇게 표현한다.

누구에게도 평등한 사회 속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만민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는 2천 년 선교의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그 역사적 전통이 이 시대에 끝나지 않도록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지역과 사회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자들이어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모습으로 벽을 쌓고 대문을 높여 단절된 형태를 갖는 교회는, 정통적 교회 역사 위에서 있기 힘들 것입니다. 만유의 주재이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시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거나, 성소라는 곳에 머무신다거나, 제단 위에 계신다거나 하는 추측은 교회건축을 원시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더구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교회건축은 근본적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건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감동시키는 건축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선택하게 하고 우리들을 연대하게 하고 이웃에 열려 있는 건축을 뜻합니다.”¹⁵⁾

교회는 누구나 특별히 교회 밖 타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교회가 타자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교회라는 권리주체에게 사적 소유권이 귀속되지만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담을 낮춰야 한다.

교회가 물리적 담을 제거할 경우, 교회 밖 타자들의 접근성이 증가할 수 있다. 반면 높은 담은 시각적으로도 행인들을 공간에서 배제시키며 접근 가능

14) 같은 책, 193.

15) 승효상, 『교회 건축의 윤리와 공공성』, 59.

성을 줄인다. 교회 건축에서는 공개 공지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의하면 다른 시설을 포함한 종교시설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공개 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¹⁶⁾ 공개 공지는 “사유 대지 안에서 소규모 휴게시설 등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방된 장소로서 사유지이면서 동시에 공유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¹⁷⁾ 대부분 교회의 경우 공개 공지를 일반인들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만들거나 표지판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접근하기 어렵게 해 놓았다. 그러나 공개 공지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만들고 휴식 공간, 소규모 체육 시설 등을 제공한다면 교회의 개방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또한 교회에 카페를 많이 운영하는데, 실내보다는 실외에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일반인들이 더 부담 없이 교회 건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들이 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관련 공간과 복지관을 지역 사회에 개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교회들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 교회를 규정할 때는 보다 더 다양한 타자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 혹은 공간의 개방이 필요하다.

교회가 포용할 수 있는 교회 밖 타자들은 다양하다. 한 예로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Alcoholics Anonymous) 모임을 교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교회에서 알콜중독자들의 치료 모임을 허락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불안정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간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한국에서 이들의 모임은 병원과 복지관에서 주로 열리는데, 몇몇 성당도 장소를 제공한다. 아쉽게도 개신교회는 모임 장소 목록에서 보이지 않

16)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17) 정혜진, “도시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 『한국교회 건축과 공공성』, 396.

는다. 그러나 교회가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면 교회 공간을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타자들은 노숙인들과 가출청소년들일 것이다. 교회가 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동절기 교회 쉼터”(Churches' Cold Weather Shelters))를 운영하여 1월부터 3월까지 런던의 20개의 자치구에서 한 자치구당 7개의 교회가 하루 밤씩 순환하며 노숙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에서 “우리 집으로”(To Our House)를 운영하며 겨울철에 교회 쉼터를 제공하며, 교회의 쉼터와 협업해서 운영되는 “노숙인을 위한 파트너십”(The Partnership for the Homeless)은 뉴욕시에서 저녁에 쉼터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숙식을 제공한다.¹⁸⁾ 한국의 교회들이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전면적으로 노숙인들과 가출청소년들을 포용할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교회는 이들을 품는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포용의 방법을 지자체와 주변교회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노숙인들과 가출청소년들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가면 좋을 것이다. 기반생활터전이 없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샤워할 시설이다. 교회안 화장실에 샤워실을 마련하고 노숙인들이 씻을 수 있도록 시간과 온수 등을 제공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숙소를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교회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추운 동절기에 따뜻한 식사를 공급할 수 있다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교회의 공간을 다른 언어를 갖고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교회의 개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18) 송용섭,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공공적 교회 건축,” 곽호철 외, 『한국교회 건축에는 공공성이 있는가』 (서울: 동연, 2017), 252-57

이민을 들어오고 있다. 예배의 경우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2언어로 드리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모국어로 드리는 예배는 피상적인 소통의 도구인 제2언어로 경험할 수 없는 근원적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가 담긴 전통음식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된다. 교회들이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려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들에게 예배와 친교 공간을 제공한다면, 언어와 문화적 타자에게 교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교회 내 타자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을 가장 차별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이다. 교회는 장애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그 이유인지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들이 따로 존재한다. 예배 때만 되면 장애인들이 특정 교회로 격리된다는 사실은 타자를 위



<그림 2> 장애인 주차구역

한 교회의 존재 방식에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교회가 장애인 프리 지역이 된다는 것은 신체적 약자를 구조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교회 내 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의 모든 동선에서 휠체어가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들은 주차를 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경우 주차면에 장애인 표시는 되어 있지만, 물품 적재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바로 옆에 휠체어를 운용할 공간이 없이 일반차량 주차면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장



<그림 3> 장애인 주차구역에 놓인 여러 가지 물건들

애인 주차면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주차를 한 후에 교회에 접근할 때도 이동로 경사가 완만하거나 아니면 승강기가 찾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보호자와 함께 차량 없이 교회로 진입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승강기는 교회 입구에서 찾기 쉬운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교회 주 출입구의 경우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도 있다. 주 출입구는 계단이 없는 구조로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계단의 전면적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이동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이동 통로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한 긴 통로라면 가능한 한 휠체어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넓은 바닥 면적을 갖기 어려운 한국교회의 건축 상황에서 폭넓은 보행 통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보행 통로가 충분한 너비를 제공해야 한다.

예배당 안에서 장애인들 자리의 위치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강단을 편

하게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장의자를 사용하든 아니면 개인용 의자를 사용하든, 장애인 휠체어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편안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강단을 바라보기에 가장 편한 곳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구획해야 한다.



<그림 4> 예배당 내 휠체어 전용석

친교실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식사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식탁 교제가 가능한 친교실을 밥만 먹고

가는 곳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다. 예를 들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든지, 많은 식탁과 의자 때문에 장애인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식탁과 의자가 함께 고정되어 있어서 휠체어에서 내려야만 식탁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의 경우도 휠체어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느 곳에도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출입문 등은 의무설치 사항이다.¹⁹⁾ 그러나 내부 복도, 내부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8058#0000>

세면대 등은 권장 사항이다. 교회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건축비용이 상승한다. 그러나 교회가 타자를 위한 공간으로 존재한다면 과시적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소외된 타자를 위한 내부 구조물 설치 및 개선에 비용을 쓰는 것이 타자를 위한 교회에 들어맞는다.

교회 내 타자로 분류될 수 있는 약자들은 여성이다. 여성들은 교회 구성원의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며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회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여성들은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남자들과 달리 배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구체적으로 자모실, 화장실, 그리고 친교실과 주방이다.

자모실은 부모들이 영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젖먹이들에게 수유실로 사용되기도 한다. 수유실은 남성들이 함께 있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공간이 된다. 자모실에는 수유실이 분리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자모실에 수유실이 분리되어 제공되지 않으면 산모들은 자모실에서 애기아빠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육아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구조가 된다. 교회의 공간은 육아를 부모가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모실 안에 따로 수유실을 운영해야 한다. 수유실과 자모실은 모두 예배당에서 분리되어 있어도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며, 동시에 부모들이 함께 영아들을 편하게 돌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화장실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공간 크기는 중요한 문제이다. 화장실 사용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신체적으로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화장실 공간을 같은 비율로 배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좌변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교회 구성원에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할 때, 소변기 양만큼의 좌변기가 여성의 화장실에는 더 필요하다. 만약 교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좌변

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화장실에 있어서 남성화장실 공간보다 여성화장실 공간이 훨씬 더 크게 배정되어야 한다.

친교의 공간은 교회에서 예배공간만큼이나 중요한 공간이다.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함께 나눔을 갖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나눔의 공동체로서 친교의 공간은 교회의 두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이다. 이 친교의 공간은 교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김수연은 식탁 교제가 예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며, 친교의 공간이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예전이 행해지는” 곳이라고 규정한다.²⁰⁾ 예전으로서 친교를 받아들인다면 친교의 공간은 필수적인 공간으로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고, 친교가 잘 이뤄질 수 있게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편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하고 입구와 내부를 소박하게 꾸며” 부담 없이 친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¹⁾

제한된 대지면적에 교회를 건축할 때, 다층 건물을 짓게 된다면 어느 층에 어떤 공간을 배치하는지도 신학적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타자 중심의 교회는 친교의 공간을 교회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에 배치가 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더불어서 교회 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교의 공간과 더불어 중요한 공간은 주방이다. 주방은 친교가 이뤄질 수 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며 설거지와 모든 뒤처리를 하는 곳이다. 이 주방 공간이 친교의 공간과 완전히 격리된다면 그 부정적 상징성이 부각된다고 김

20) 김수연, “내부와 외부의 ‘사이-공간’으로서의 교회,” 박호철 외, 『한국교회건축과 공공성』 (서울: 동연, 2015), 263.

21) 이정구, 『교회 건축의 이해: 신학으로 건축하다』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192.

수연은 지적한다: “봉사의 공간이 분리되어 격리된 곳에 위치한다면 주방 봉사는 낮고 천한 일이라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갖게 할 것이다....특히 주방 혹은 부엌이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공간 구조를 통해서도 인식되어야 한다.”²²⁾ 부엌은 감춰진 공간이 아니라 친교 공간과 함께 드러난 공간으로 여성만의 공간이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친교실과 주방을 나누는 벽은 낮고 출입이 용이해야 하며, 어둡고 구석진 곳이 아니라 밝고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교회에서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핵심이며,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참여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교회 건축은 연약한 타자인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일조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생태계에는 생태적 짐을 지우는 일이 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교회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보다는 이미 건축된 교회를 양도받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공유의 한 방식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고 있는 학교강당이나 지역 관공서를 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공서를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주말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학교들이 주말을 비워둔 채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공간의 활용은 새로운 교회 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한다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그 한 예로 완성된 패시브하우스 방식이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기존 주거용 건물과 비교할 때 에너지를 90%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특정한 건축방식이라기 보다는 “에너지 절약적이며 쾌적하

22) 김수연, “내부와 외부의 ‘사이-공간’으로서의 교회,” 263.

고 경제적이며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구현을 위한” 방식을 의미한다.²³⁾ 이미 외국에서는 패시브하우스 형식의 교회가 건축되고 있다. 혹은 저에너지하우스 방식을 교회 건축에 도입한다면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자연으로서의 타자를 보호하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타자들이 있다. 그들은 죽은 자이다. 외국에서는 교회에 묘지가 연결되어 있는 반면, 한국 사회에서 죽은 자는 일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타자이고, 생활반경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추모와 관련된 시설들, 승화원과 추모공원 등은 다 혐오시설로 폄하되고 생활영역에서 먼 곳에 배치된다. 외국에서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전혀 별개로 존재하고 교회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집행하는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병원에 바로 장례식장과 결합되어 있다. 박우영은 이런 병원과 장례식장의 결합이 “우리 사회가 철저히 도구적 효율성에 의해서 자기성찰적 과정을 결핍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며, “도구적 효율성과 편리성이 삶의 의미와 죽음의 존엄성을 은폐하거나 가리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⁴⁾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을 성찰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건물 구조가 유도한다는 것이다.

병원과 장례식의 무성찰적 결합(혹은 효율지상주의적 결합)은 한국교회에서 죽음을 성찰할 공간을 배제하는 것과 연동되어 죽은 자의 근원적 소외를 구조화한다. 죽은 자를 기념하는 공간은 대체불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구획하는 것인데, 죽은 자의 공간이 교회에서 축출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대체불가능한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

교회가 삶과 죽음을 깊이 성찰하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죽은 자의 공간이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문

23) 윤근영, “패시브하우스 소개 및 기준,” 「건축환경설비」 6/3 (2012), 9-10.

24) 박우영, “한국 내 교회 공간 읽기와 공간 구조 균열 만들기,” 241.

제이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공간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기독교 교회는 마땅히 “성도의 교제”라고 불린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현재 땅 위에 살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고 이해한다. 살아 있든 죽었든 우리는 모두 믿음의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인들을 장사 지낸 장소들이 특별한 경외심을 가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왔다. 과거에 묘지는 교회 내부나 근처에 위치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비록 죽음에 의해 서로 나뉘었지만, 매주 하나로 모였다.²⁵⁾

죽은 자도 성도의 일원으로 함께 공동체 속에서 교제를 나눠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죽은 자는 한국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타자이다. 죽은 자는 죽음 때문에 절대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타자이면서, 그 존재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한국교회 공간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교회가 성도들의 일원인 그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²⁶⁾

교회 내 납골당 설치가 그 한 대안이다. 실제로 교회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삶과 죽음을 넘어선 성도의 교제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다. 교회 안에 혹은 부속 건물에 납골당을 마련한다면, 타자에 닫힌 공간 혹은 삶에 매몰된 공간이라는 교회의 오명을 벗고 삶과 죽음을 포괄한 공간, 도구적 효율성을

25) 제임스 화이트·수잔 화이트 지음, 정시춘·안덕원 옮김, 『교회건축과 예배공간: 신학과 건축의 만남』(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02.

26) 서구로부터 유사고딕을 수용하면서까지 서양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이식한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분리될 수 없었던 교회묘지를 선교의 초기부터 배제한 것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극복한 공간, 타자 중에서도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타자까지도 수용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교회와 무관한 무연고자들에게도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교회가 갖고 있는 배타적 이미지, 즉 교인들만의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벗어나서 타자의 공간은 삶과 삶의 너머 영역까지 개방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산타 크로체 성당에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뿐만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 갈릴레오, 그리고 교황청으로부터 금서가 된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도 묻혀있다. 영국 런던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는 윌리엄 윌버포스와 아이작 뉴턴도 있지만, 진화론을 제창한 찰스 다윈도 묻혀 있다. 교회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교회가 품어야 할 불편한 타자들의 좋은 예이다. 무연고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교회가 교회와 무관한 죽은 자들에게 공간을 허용한다면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오는 글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절대적 타자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아닌 존재들을 위해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는 자기과시성이나 자기만족을 지양하고 타자를 환대하고 타자를 위해 개방된 공간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 안팎의 타자들, 즉 일반 시민,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 죽은 자, 생태계의 보존 등을 배려한 공간 배정과 건축이 필요하다.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는 벽을 낮춘 교회 혹은 벽을 허문 교회

가 필요하고, 노숙인들과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추진해야 하고,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차하고, 보행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필요하며, 여성들에게는 친교와 봉사를 남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친교실과 주방의 배치와, 수유실을 따로 갖춘 자모실, 확장된 화장실 등이 필요하고,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의 건축이나 일반 건물의 공유 등이 필요하며, 죽은 자를 위해서는 납골당의 설치와 무연고자도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언급된 타자의 목록이나 타자에게 필요한 공간 등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교회 공간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타자를 향한 교회의 사랑이 공간을 통해 구조화될 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건축가가 본 교회 건축

홍기협 대표

(자오개마을 대표건축가)

■ 건축가가 본 교회 건축

홍기협

엘리아데의 “성과 속”

20세기의 위대한 종교학자인 멀치아 엘리아데는 저서 “성과 속”에서 ‘성은 곧 속의 반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성과 속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sacred와 profane인데, 성(sacred)은 sacrum을 어원으로 해서 나온 말이며, 이 말은 로마 시대에 신이나 신의 힘에 속해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또한 속(profane)의 어원은 profanum인데, 그것은 '성전 경내 앞'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경내(fanum)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관례와 어원상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속(profanum)”이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관련되어 있었고, “성(sacrum)”이라는 말도 일종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장소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sacrum과 profanum은 둘 다 특별한 의미의 장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부제인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에서” 역시 각각 사회와 교회가 속한 장소와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하며, 장소와 공간적 해석의 방법과 예를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건축가의 시각으로 주어진 주제인 “교회와 건축”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지도로부터 / from mapping
- 걷기로부터 / from drifting
- 접기로부터 / from folding

첫째, 지도(mapping)를 사용하여 장소와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이 다른 지도를 사용한다.

지도로부터 / from mapping

1. nolle map

1700년대 중반 놀리(giambattista nolle)가 제작한 지도로 대상 장소와 공간의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흑백으로 표현한 지도이며 그렇기에 solid/void, figure/ground 지도라고도 부른다. 이 지도를 사용하면 장소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현재도 사용하는 지도의 하나이다. 도시 공간의 장소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건축적 장치들은 크게 건물, 길, 광장으로 이 지도를 통하여, 두 도시 roma와 firenze 교회의 장소적 공공성과 공간의 경건성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베드로 성당, 광장 /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칼리쿨라의 전차 경기장 자리에 세워졌다. 그 당시 도시의 상징이던 오벨리스크(obelisk)가 지금 성당 광장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 까닭이다. 이교도(pagan)인 이집트인들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오벨리스크가 교회의 상징인 베드로 광장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 것은 베드로가 순교하여 오벨리스크의 밑에 묻혔기에 이교도의 상징이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의 성당은 크게 외부 - 열주 회랑 - 광장 - 성당 - 제대 순으로 진입하게 되어있는데, 광장은 열주(4열) 회랑(corridor)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기에 성당의 진입광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 광장은 교회에 속한 아트리움(atrium)이라는 교회의 공간이다. 열주 회랑 - 광장을 설계한 베르니니(bernini)의 초기 스케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벌려 자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광장은 현재도 교황이 그곳에 모인 신자들을 강복하는 교회에 속한 공간이다.

광장의 공간은 2개의 원이 겹치는 타원형의 형태로 계획되었고, 그렇기에 두 개의 원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열주 회랑 밖의 외부환경이 시각적으로 차단되는 폐쇄적 공간이 되고, 중심에 위치하여야만 회랑 외부환경을 볼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이 된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공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당에 진입하기 위해 만나는 마름모꼴의 진입 광장은 마주하는 교회 전면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시도법에 근거한 세심한 계획이다. 이러한 형태의 마름모꼴 광장은 로마의 캄페도리오 광장이나 피엔차의 두오모 광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성당 내부로 진입하면 돔의 바로 밑에 교황의 제대(alter)가 있으며, 그 제대의 바로 밑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수평적인 공간의 흐름은 외부 - 아트리움 - 돔 - 제대로 이어지는 장축으로, 수직적

공간의 흐름은 하늘 - 돔 - 제대 - 베드로의 무덤으로 이어져 수평적 축과 수직적 축이 교차하고 있다.

반면, 두오모(duomo)라고 불리는 피렌체의 대성당은 쿠폴라와 종탑, 세레당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중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된 독특한 재료와 노출된 8각 뼈대의 쿠폴라 자체가 오브제(object)로서, 도시 어디서나 성당의 쿠폴라와 종탑의 위치를 확인하며 관찰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피렌체의 상징이다. 세레당을 마주하고 있는 배치의 방법은 베드로 성당과 전혀 다른 공간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2. Perspective map - 재현과 인식

1400년대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가 제작한 투시도법을 사용한 지도 만드는 법으로 대상 공간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실제 공간과 우리가 인식하고있는 공간을 mask / face (gombrich-the mask and the face / physiognomic theory) 의 관계로 분석하여, 교회의 공공성과 경건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적 도구이다.

원근법과 현대성 / 주은우 - 시각과 현대성

원근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회화사의 차원이나 그림을 보고 감상하는 시각 심리학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근법을 개별 회화의 재현 양식의 차원이나 회화 이미지를 시각하는 과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 양식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원근법을 중심으로 현대성의 시각 체제를 해명하는 이러한 작업은 시각의 사회적 성격을 해명하는 작업의 하나이다.

기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시각 공간을 합리화함으로써 평행선들이 소실

점으로 수렴되고 이 수렴 현상에 따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상의 크기가 단축되는 것, 소실점에 의해 하나의 중심적인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시각 공간의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시각 주체의 환영을 구축하는 것 등은 원근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밀라노 st. satiro성당 제대 벽 / 마사치오 트리니티 / 피엔차 두오모광장 / 캄피돌리오 광장 / 이상도시 계획안 / 장면의 전환 / visual field / visual world

3. heuristic noll map

이 방법은 현재 시립대 교수로 있는 황지은교수의 하버드대학원 논문으로 소개된 방법으로(Jie-Eun HWANG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 임의의 도시공간에 속하는 한 거리를 특정하여 그 거리가 갖는 의미-특히 거리의 공공성의 특성을 noll map과 결부하여 도시 공간 안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사회와 교회가 접한 거리의 공공성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개방된 공간에는 일정 수준의 공공성(public-ness)이 부여될 수 있다.
- 거리는 이웃에 의해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 공간 역시 공공영역의 일부이다.

Grand bazaar-iran / galleria-toronto

4. collage map

이 방법은 소위 Texas Rangers로 널리 알려진 Cornell 대학교의 Collin rowe 교수가 자신의 책 “collage city”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그에 따르면, 도시는 각기 분리된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데 근대도시는 오브제나 건축의 배경이나 장(field)이 존재하지 않아, 각각의 오브제를 연결하는 가로와 광장과 같은 공공 공간을 필요로하며, 새로운 장소와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전통 도시의 구성요소로 중요한 공공건물과 광장, 거리 등을 차용하거나 복제, 변형하고, 기존의 도시 공간에 삽입, 접합하여 다원화된 현대도시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장소 및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도시환경에 연속성과 조화를 연구 제안하는 방법이며, 기본적으로 noll map을 사용하여 현대도시의 조직(fabric)에 적절한 전통 도시의 조직을 접합하여 풀라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사람들은 길과 광장과 같은 공간들을 통해 도시를 이해하며, 이러한 공공공간들이 도시 조직을 매우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 전통 도시 구조와 현대 도시구조의 병치 / juxta-position

교회와 공간 포스터

걷기로부터 / from drifting

naked city / walk scape / strip scape - Learning from lasvegas /
걷기 예찬 / market street / arcade / 옛길-안국동-옛길을 복제하여
건물 내의 새로운 길을 제안 / 건축적 산책로

1. naked city

1957년 출간된 기 드보(guy debord)의 책으로, 기 드보는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보들레르의 산보객(flaneurie)처럼 도시를 탐험하기 위한 재미있고 창의적인 전략으로 정처 없이 도시를 방황하는 표류(drift)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파리의 열아홉 구역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심상 지도(mental map)적 배회의 가능한 경로를 가설적으로 제시한다. 기 드보가 제안한 표류(drift)라는 방법은 도시와 장소, 장소와 건축, 건축과 공간을 연결하는 “거리”라는 공공성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Walk-scape

Francesco careri가 제안한 방법으로 현대 도시의 유목적 장소(nomadic spaces)들을 탐구하고 변형하는 미학적 도구로써 “걷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 strip scape - Learning from lasvegas / 걷기예찬 / market street /
arcade / 옛길-안국동 / 건축적 산책로 등의 다양한 “길”과 “걷기”의 관계와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Activity corridor / 안국동 프로젝트-옛길을 복제하여 건물 내의 새로운
길을 제안 / market street - 일본 초등학교

접기로부터 / from folding - 경동교회 - 접힘과 펼침 - 펼쳐서 사회와 소통하고, 접어서 영성을 지킨다 / 사회와 영성의 사이길

folding in architecture / folding architecture

folding은 20세기 말의 건축적 담론으로써, 1993년 출판된 Folding in Architecture는 당시 해체주의 건축의 정형화된 논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던 건축가들의 작품집이다. 들뢰즈의 논문 “the fold, Leibniz and Baroque”을 함께 곁들인 Folding in Architecture는 들뢰즈의 작품과 현대의 예술 및 철학적 사조를 이해하는 이론적 도구를 제공하였으며, 이 책에 실린 folding의 몇 가지 공간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접힘 : 과정에서의 무한한 작업이며 결정하기보다는 연속화하여 무한성을 갖게 한다.
- 외부와 내부 : 무한한 접힘은 물질과 정신, 건물의 외부와 내부, 안과 밖을 분할하고 이동한다.
- 펼침 : 접힘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접는 행위의 연속이다.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haas)는 그가 설계한 도서관의 건물 내부를 연속적인 바닥 면을 구성하여 사회적 매직 카펫(social magic carpet)이라는 은유로서 사용하였다. 바닥 슬라브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 연속적인 통로를 통하여 도서관의 경험을 도시의 랜드스케이프 속으로 변화시킨다. 공간적 장치로서의 접힘은 도서관의 실내를 통해 flaneurie(산보)를 할 수 있는 순환의 공간적 장치가 된다.

교회공간의 몇 가지 예(examples from churches)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의 공간, 상징과 매개 장치의 예

- 구덕교회 / 대덕교회의 길과 마당

- 구덕교회의 길 - 승효상 /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자이며 순례자이다.
- 대덕교회의 후정 - 유걸 / 경계의 모호함 - terrain vague
- 동송교회의 마당 - 민현식 / 풍경의 연속을 위한 장치로서의 마당
동해시민교회 / 의정부성약교회
- 정신학원 강당 / 다목적 교육공간 - 제대벽의 회화적 풍경 - 성서적 풍경으로 / 그림자 십자가
/ 지하 장애인 주차공간을 교육 및 집회 공간으로, 다목적 교육공간의 '길'의 의미 --- 시장길 /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공공재들은 무엇인가?

- 거리와 마당을 제안한다. / 풍경의 연속 - 전경, 근경, 원경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영적상징들은 무엇인가 ?

Dome - 판테온 / 로마의 painted dome / Hendrix chapel / indian museum

제대벽 - 가회동성당 / 사랑의 교회 - living room

물성 - Low-tech material / high-tech material

교회의 경건의 공간을 사회의 공공의 공간으로 교환하는 건축적 매개의 장치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길과 도서관을 제안한다.

Blurring architecture / program

도서관 --- Media kitchen / seattle library - mixing chamber, social magic carpet

교회공간의 복잡과 대립(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church)

- 솔로몬 신전 - 제사장 - 산헤드린 공의회 - 유대교 회당 /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 / 정주적 / in-palce / design by man's will
- 모세의 장막 - 선지자 - 예수 그리스도 - 카타콤 /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 유목적 / nomadic / design by god's will
- emerging church / emerging issues - dan kimball
 - sacred space; the importance of aesthetics and environment
 - it didn't look like a church in there, it looked like a wal-mart
 - it was too bright in there; I thought church would be darker
 - where were the crosses? It seemed more like a theater than a church
-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
- holy vs pagan / homo-geneity vs hetero-geneity ...obelisk / la toulette chapel / 승효상-묵상
(http://www.sacredarchitecture.org/articles/almost_religious_couturier_lecorbusier_and_the_monastery_of_la_tourette)
- nature vs nurture
- panoramic view / perspective view

■ MEMO

■ MEMO

